

## 프랑스 양돈 생산비 가장 낮고 이태리 가장 높아

—유럽 5개국 생산비 비교 조사 결과

네덜란드와 덴마크 등 유럽 5개국의 양돈 생산비 비교 결과 프랑스가 가장 낮고, 이태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양돈연구소가 조사한 1995년도 유럽 주요 5개국(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프랑스, 이태리) 양돈 생산비는 도체중 1kg당 프랑스가 1.94달러를 나타냈으며, 이태리는 2.23달러를 기록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거의 2.16달러였으며, 영국은 1.98달러였다.

각국의 양돈생산비를 비교하는 것은 양돈산업 구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다.

프랑스의 양돈농가는 우리나라처럼 자돈생산과 비육돈 사업을 하는 일괄생산체제를 유지하는 반면, 네덜란드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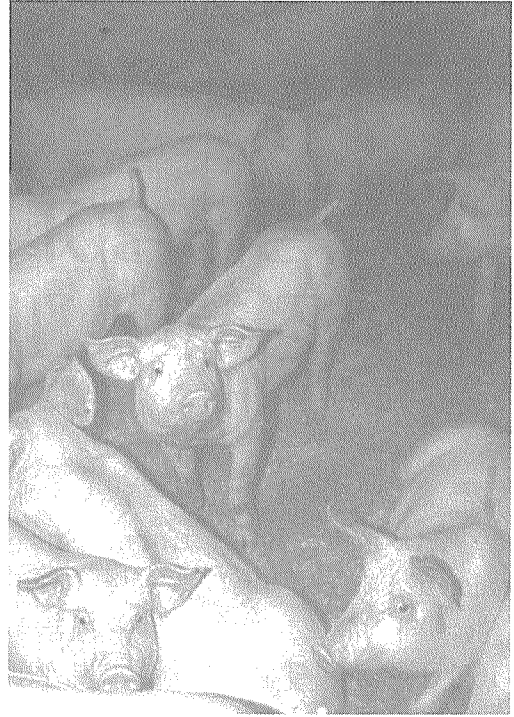
돈 생산농가와 비육돈 생산농가로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국의 도체중 평균이 이태리는 129kg, 네덜란드는 87kg, 프랑스 83kg, 덴마크 74kg, 영국 66kg 순으로 차이가 심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양돈 산업 구조의 차이때문에 생산비를 도체중 1kg당으로 산출했다.



네덜란드 양돈연구소는 생산비 비교외에 생산성 비교도 함께 했는데, 모돈 1두당 연간 이유두수(PSY)는 덴마크가 21.80두로 가장 높았으며 이태리는 19.98두로 가장 낮았다. 일당 증체량은 덴마크가 744g으로 가장 높았으며 영국이 586g으로 가장 낮았다. 경제형질수치는 도체중 차이때문에 보정을 거친후의 결과이므로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뤄진 비교이다.

모돈과 비육돈 1두당 사육면적투자비용 비교에서는 프랑스가 각각 2075달러, 359달러로 가장 낮았다. 이자율 부담도 7.5%로 낮은 편이었으며, 이태리는 이자율이 12%로 높은 편이었다.

네덜란드 양돈연구소는 폐수처리비와 같은 환경개선비가 앞으로 양돈생산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표1〉 유럽 5개국 양돈 생산성 비교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영국	이태리
연간 이유두수	21.59	21.80	21.80	21.32	19.98
일당증체량(g)	729	744	728	586	613
사료요구율	2.79	2.80	2.90	2.58	3.58

〈표2〉 유럽 5개국 양돈 생산비 및 가격(1995년도 자료)

국 가	1두당 사육면적 투자비용(달러)		이자율(%)	사료 100kg당 가격	
	모돈	비육돈		모돈용	비육돈용
네덜란드	2,712.2	458.9	7.20	23.16	24.55
덴마크	2,993.5	386.3	8.30	26.26	25.30
프랑스	2,074.9	359.5	7.50	25.32	23.48
영국	-	-	8.30	23.00	24.88
이태리	-	-	11.80	27.93	25.20